

광주시립미술관, 상반기 교육실적 '전국 최고'

168개 강좌에 4,696명 수강...연령별 프로그램·희망 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

광주시립미술관이 올 상반기 168개 강좌에 수강인원 4,696명이 참여하며 전국 광역 시립미술관 중 최고 교육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기강좌가 163개 강좌에 2,642명, 이론강좌가 5개 강좌에 2,054명으로 타 지역 공립미술관 교육실적과 비교해 독보적인 결과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미술관 아카데미, 런치토크, 그림 읽어주는 남자 등 이론강좌를 신설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문화센터의 다양한 실기강좌 운영은 미술관 관람인구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당초 1회당 50명으로 계획했던 '미술관아카데미' (서양미술사 8강)와 '그림 읽어주는 남자' (격월 4강) 강좌는 문의와 신청전화수가 쇄도해 수강인원을 미술관 대강당 좌석수에 맞춰 200명으로 늘려야 했다는 후문이다.

이론강좌 중 하나인 '미술관 런치토

크' (총 8회)는 도시락을 먹으며 문화계 저명인사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수강인원 50명이 월초에 접수 마감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YMCA가 공동으로 협업해 분기별 50~60여개의 실기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문화센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프로그램과 전시연계프로그램, 특수학급을 위한 희망미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외에도 지역청년 기획자 양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지역대학과의 산학협업을 통한 대학생 현장 실습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인 하정동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인문학강좌, 해설이 있는 예술 영화 강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별길현 교육장차지원과장은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민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교육목표 설정, 그리고 미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의 빈센트 반 고흐 강연.

술관교육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양적인 면, 그리고 미술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

준 높은 이론 강좌 개발이 주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술관 교육은 공립미술관의 큰 기능 중 하나다. 향후에 도시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프로

그램 개발, 미술인을 위한 특별강좌, 대강당 리모델링,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신청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수 기자



금주의 문화 브리핑

- ◇김미영 초대전= 6일~9월 2일 전남대병원 1동 1층
- ◇사이버폭력예방 예술체험형 공연 뮤지컬 '드림업' = 7일 오후 5시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 ◇제9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서인선 독창회=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아트그룹 소나무 정기전= 7~12일 양림미술관
- ◇제9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차승우 피아노 독주회= 9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뮤지컬 '노크, 똑똑' 리딩 공연= 10~11일 오후 7시 씨디아트홀 <사진>



- ◇김봉소리&손정범 듀오콘서트=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김은희 개인전 '나의 꿈' = 10~24일 국윤미술관
- ◇훈장님과 함께하는 '아은서당' =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창한옥문화관
- ◇온 가족이 즐기는 국악여행= 11일 오후 5시 쌍암공원
- ◇첼리스트 이후성 제자 발표회 = 11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한뼘 클래식 방학 특별공연= 12일 오후 5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 ◇2018민주인권평화전 '세계 민중판화' =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제3, 4전시실
- ◇갤러리 헤움 기획전시 시리즈 '한국사신의 출발 #1 정해창' = 12일까지 갤러리 헤움
- ◇공포스릴미스터리 연극 '홍터' = 12일까지 화~금 밤 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4시 중앙아트홀

문학과 만나는 꿈과 힐링의 시간

섬진강여름문학학교 10~11일 곡성 '강빛마을' 펜션서 진행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가 곡성군과 공동 주관하는 섬진강여름문학학교가 어느덧 20년째를 맞았다.

섬진강여름문학학교는 문학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곡성 '강빛마을' 펜션에서 진행된다.

청소년과 작가들이 밀착해서 문학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문학 특강과 인문학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시나 산문을 써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섬진강문학학교 초대 교장이기도 했던 고 조태일 시인의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는 조태

일 시문학관을 답사할 예정이다.

밀착 체험형 강좌와 밀착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글쓰기, 문화한통속 장기자랑, 백일장을 통해 꿈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장은 "일상을 벗어나 아름다운 섬진강과 맑고 푸르른 곡성의 자연과 함께 하다보면 아이들이 도심 일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짧게나마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학과 친해지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8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접수 문의 062-523-7830, 010-3901-5367. /이연수 기자

스타 연주자들의 '드림팀' 무대

롯데콘서트홀 2주년 기념 음악축제

롯데콘서트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5일간의 음악축제를 연다.

오는 15~19일 열리는 'L클래식 페스티벌'은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스타들을 중심으로 꾸민다.

축제 첫날 열리는 '스타즈 온 스테이지'는 하루 동안 4회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기획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임동혁·김선욱·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김봉소리, 첼리스트 문태국·이상 앤더스, 소프라노 황수미, 실내악단 노부스 콰르텟·클림M 등 스타 연주자 10명이 '실내악 드림팀'을 구성한다.

16일과 18일에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공연된다. 콘서트 오페라란 무대 장치와 의상 없이 연주 중심으로 펼치는 오페라 공연을 말한다.

'타미노' 왕자가 '밤의 여왕' 부탁으로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긴 여정이 동화처럼 펼쳐진다.

소프라노 이명주(파미나 역), 테너 이명현(타미노) 등이 출연하고 정치용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는다. /연합뉴스



L클래식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상단 왼쪽부터), 바이올리니스트 김봉소리, 김수연,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17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마술사 이은결 합동 무대로 꾸민다.

19일 마지막 무대는 팡페라 그룹 포르테 디 콰르토와 피아니스트 지용이 꾸민다.

한편, 2016년 8월 개관한 롯데콘서트홀은 1988년 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28년 만에 서울에 문을 연 대형 클래식 전용홀로 큰 주목을 받았다. 풍부한 잔향(음이 반사돼 연주와 합창 뒤에도 실내에 남는 울림)과 참신하면서도 깊이를 갖춘 기획 공연으로 빠르게 시장에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